

오르비(<https://orbi.kr>)

1타 같은 N타

Zola 생운 0

-바나나 제거 특강-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Intro : 들어가기, 도입부

검색하면 바로 나옴

DdM 바나나 제거 특강

통합검색 동영상 웹문서 이미지 블로그 카페 뉴스 카카오토리 더보기 ▾

관련 바나나 껍질 활용법

동영상

 [오르비 클래스] Zola 생운 0 - 바나나 제거 특강 1강
Youtube | 2021.06.04 | ▶ 17
오르비 >

N | 바나나 제거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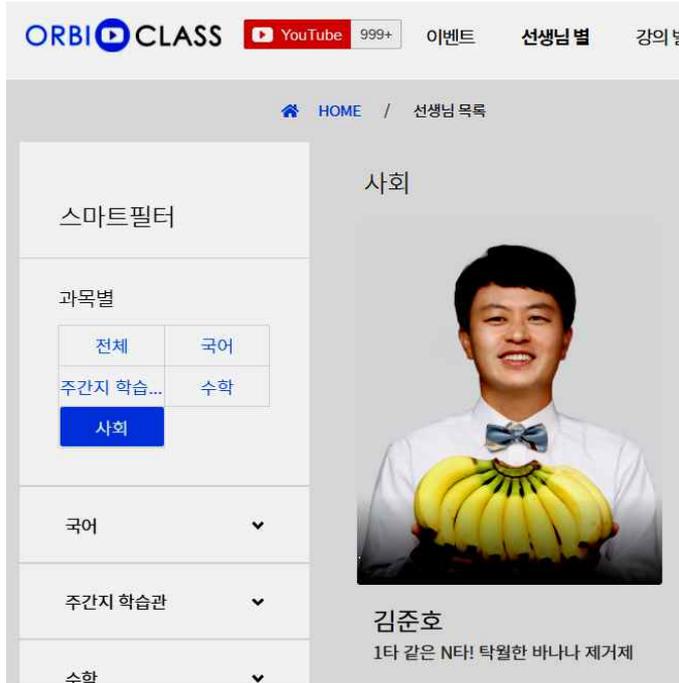
통합 VIEW 이미지 지식iN 동영상 쇼핑 뉴스 어학사전 지도 책 ...

 class.orbi.kr > course

[무료] Zola 생운 0 - 바나나 제거 특강 강의 - 오르비 클래스

[어느 오르비언의 쪽지] 쌤 바나나 제거 강의는 진짜 명강의입니다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음 [어느 오르비언의 게시글] 장점 - 바나나 제거 가능(바나나가 뭔지는 직접 들어보셔요ㅋㅋ 강의력 대박(목소리랑 제스처 등등 엄청 집중 잘 돼요) 매우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이면서 풍부한 자료 2. 생운 공부 및 문제 풀이의 문제점 ...

1타 같은 N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동대학원(졸)
 [전]
 ebsi탐구
 메가스터디 인강(논구술)
 [현]
 종로 본원
 전국모의고사출제위원
 오르비(생운, 면접, 자소서)

2. 오르비 김준호쌤(Zola쌤, 생운)
 즐라쌤은 바나나 제거 특강만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ZolaT 바나나 제거 들어보셈)

오르비 김준호쌤 추천해욤

퀄리티 있는 강이는 종로 학원 김준호 쌤 추천 합니다 .

1. 이 자료의 형식에 대해서는 오르비 zola 김준호 쌤이 매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올리시는 'zola 분석 및 반성'을 참고했습니다. 수험생 시절 즐라쌤 생운 강의랑 면접 강의 둘 다 들었는데... 즐라쌤 최고입니다 진짜루

생운 즐라 始發 ㅋㅋㅋ 김준호쌤 사문 김서영쌤 모두 강추합

1. Zola가 입시에서 가르친 과목들

논술, 구술 - 메가스터디 인강(06년?~17년까지), 구술 대표 강사
국어 비문학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 ebsi(06~07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13년~; 생운 첫해부터)

2. Zola의 궁금증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지?
또는
(다른 선지를 골라서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 선지를 고를 수 있지?

3. Zola의 발견

[17년 1월의 어느 날]
인간의 DNA와 50%가 일치하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Find the () of human type!
()형 인간을 찾아라!

4. 바나나의 5대 성향

- (1) 지식 암기에 대한 자부심 · 의존도 큼
- (2) 지식은 단어(키워드) 중심임.
(1)+(2)의 예) 생명공동체는 누구?
- (3) 처음 나오는 제시문에 당황함. 예) 19-6평-9번-갑 제시문
(두 번째부터는 해결 잘 뚫-암기!)
- (4) 처음 나오는 선지를 틀림. 예) 19-6평-14번-ㄱ, 19-수능-18번-ㄷ, 21-수능-9번-ㄹ
(두 번째부터는 해결 잘 뚫-암기!)
- (5) 그리고 (3)(제시문)+(4)(선지)를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zola 외움!
(외운 것'만' 잘 함. 살짝 응용만 해도 헛갈려하고 징징됨)

5. 바나나의 4대 유형

- (1) 선지(문장)
- (2) 제시문
- (3) 기출 분석
- (4) 교과서

part 1

Find your



!!!

1. 선지(문장) 바나나

※ 다음 문장들 중에는 문장 자체가 '항상' 참이거나 거짓인 것들이 있다(조선어법 또는 내용 측면에서 '참'이 될 수 없거나, '거짓'이 될 수 없음). 모두 골라봐라!

※ [교육청]이라는 표시 이외는 모두 평가원 선지들임.

1)(도가에 따르면) 천지는 질서가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2)(데카르트에 따르면) 기계인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이다.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3)(레오폴드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관점을 추구해야 한다.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4)(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5)(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6)(싱어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교육청]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7)(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 것이다.[교육청]

- You의 풀이
- Zola의 풀이

8)(벤담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내재적 가치]이다.

- Banana의 풀이: 벤담은 형벌은 사형은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보았다.
- Zola의 풀이

9)(테일러에 따르면) 개별 생명은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므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교육청]

- Banana의 풀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생태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개별 생명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 Zola의 풀이

10)(베이컨에 따르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

- Banana의 풀이: 베이컨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고, 인간을 위한 수단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Zola의 풀이

2. 제시문 바나나

※ 생운을 했던 안 했든 풀 수 있어야 한다!!

11)[2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Zola Guide

12)[17-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Zola Guide

13)[19-6]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Zola Guide

○○신문 ○○○○년 ○월 ○일

칼럼

고위 공직자들은 법률 제도와 별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 의식을 스스로 내면화해야 한다. 귀족의 책무를 뜻하는 ㉠은/는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고위 공직을 담당한 지도자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덕목이다. 이 덕목은 더 강한 책임 의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이 덕목의 실현으로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는 강화되고 준법과 참여가 원활해진다. 나아가 국가가 내우외환에 봉착할 경우 구성원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꺼이 나서게 된다. ...**(후략)**...

- ①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 ② 시민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사회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한다.
- ③ 정치권력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여 국가 전반의 청렴성을 고양한다.
- ④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모두에 공통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 ⑤ 국가가 위기를 맞을 경우 일반 시민들의 솔선과 협력을 유도한다.

14)[20-6]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Zola Guide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 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 등을 위해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 ②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 ③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⑤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3. 기출 바나나

☞ Zola Guide 이 부분은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 비교를 통해서 기출 분석 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나나들이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1) 기출 바나나 1

15)[17-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갑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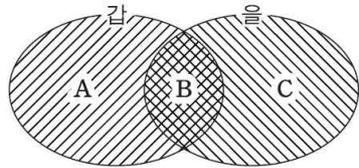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 Zola Guide [수만취 질문 글]

이거 답이 5번 인데 5번이 왜 답인지까지는 대충 이해했는데 4번에 칸트는 왜 답이 아닌가요? 제가 아는 '의욕하다'는 '하다'의 'do' 정도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응분의 보복을'이 아니라 '응당의 보복을 받을 죄를'이어야 하는건가요; 해설에도 칸트 내용 자세히 안 써줘서..



16)[16-수능]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div>

<보기>

- 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 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기출 바나나 2

17)[19-수능]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19-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 ③ 국가 간 이해 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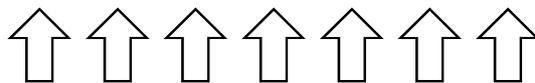
(3) 기출 바나나 3

19)[21-수능]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만약 한 존재가 쾌고를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p> <p>을: <u>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u></p> <p>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의 본능은 공동체 내에서 경쟁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의 윤리는 협동도 하라고 촉구한다.</p>
(나)	

<보기>

- ㄱ. A: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니다.
 - ㄴ. B: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 ㄷ. C: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ㄹ. D: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 Zola Guide <보기> ㄴ 오답률이 53%(ebsi)~43%(megastudy)임!!!!



제시문 모음(‘의무’,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가 사용된 제시문)

- [21-6-15] 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 [20-6-6] 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 [19-수능-9] 갑: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 [19-9-12] 갑: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情)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 [16-수능-15] 갑: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 [15-9-7] 을: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 [14-수능-11] 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14-6-16] 갑: 인간은 자연을 고려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지 모음

- [19-6-9] 르. D: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15-수능-14] 드. C: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15-9-7] ㉔ 을은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 [14-수능-11] 그. A: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적으로만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 [14-6-16] ㉑ 갑은 인간을 위해 생태계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4. 교과서 바나나

👁 Zola Guide 1. 19 수능 생운에서 일어난 일

19수능 생운 니부어 맞추신 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1465769>

어떻게 맞추셨나요?
 개념강의에서도 니부어는 사회윤리주의자며 선의지의 통제하에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주던데
 "애국심은 개인적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이런 건 어떻게 추론하신 건가요...ㅠㅠ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 보기 ▶
-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LeeJesung · 767919 · 02/15 02:29 · MS 2017

교과서에도 있어요..6모에도 나왔고..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 758219 · 02/15 17:08 · MS 2017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교학사, 173쪽] 니부어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지닌 타인·이웃·소속 집단에 대한 이타심이 확대되어 국가에 대한 것일 경우 애국심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애국심은 자국과 타국이 대립할 때 흔히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자극한다. 이러한 행동의 예는 타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이타적 행위를 하는 종교인들 중에 타 종교와 대립할 때 그 종교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열공+즐공=대박!!!

덧붙임. 아래 댓글 중에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작년 6평 제시문 정리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 Zola Guide 2. 15 수능 생운에서 일어난 일



<자료 1> 신문 기사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의 생물과 영어에 이어 윤리에서도 오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교육 당국의 거듭된 조언대로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고, 왜 틀리는지, 강버들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치러진 수능 시험의 '생활과 윤리' 과목 7번 문제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형제 간 도리에 대한 바른 설명을 찾는 문제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ㄴ, ㄷ, ㄹ 이 포함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보기 ㄴ은 형제가 아닌 친구 사이의 도리인 '권면'에 해당해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권면'을 친구 간 도리로 분류한 EBS 교재의 내용이 근거입니다.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은 7번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공손하라.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이다. 관대하라. 그것 역시 인의 실천이다. 공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나)	㉠은/는 동기간(同氣間)에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悌]하는 것이다. 뼈와 살은 비록 나뉘었으나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을/를 실천해야 한다.

— < 보기 > —	
㉠	하렬(行列)을 다리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
㉣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105쪽**] 이황은 형제자매가 “성의를 다해서 깨우치게 해야만 비로소 의리가 상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형제자매가 서로의 인격적 발전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그 애정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애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천재교육 교과서, 106쪽**]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있지만 놀이를 같이하는 친구이며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이다. “소학”에서는 형제자매를 ‘같이 음식을 먹고 옷과 책상을 물려주고 받으며 같이 공부하면서 노는 관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친구관계, 남녀관계, 어른 또는 어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 Zola Guide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면 교과서를 그냥, 일단, 요약하면서 읽는  들이 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소개해 줄테니 아래 칼럼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Zola 1] N수생 생운 상담사례 공유(for 교과서 보려는 모든 분들)

<https://orbi.kr/00016821123>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를 없애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

Remove your  !!!

바나나 제거 방법 요약

1. 과목의 특성 2가지 이용하기
 - (1) 생활
 - (2) 윤리

2. 독해(제시문과 선지)의 원리 이용하기

바나나 제거 1.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성

☞ Zola Guide 밑줄 친 <보기> 또는 선지의 참·거짓(OX) 여부‘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생활이란?

현실성(참, 실천·실현 가능성) vs. 비현실성(거짓, 실천·실현 불가능)

20)[16-9]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21)[20-수능]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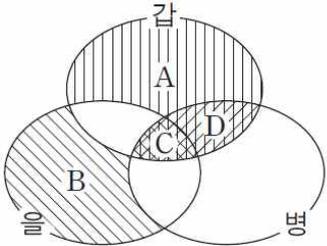
갑: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 ㄴ. 갑: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 ㄷ. 을: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ㄹ. 갑, 을: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2)[16-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p> <p>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ㄴ. B: 인간은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ㄷ. C: 동물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 ㄹ. D: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선 새로운 도덕 원리가 요청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Zola Guide

- (1)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다.
- (2)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3) 참고

[15-수능]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환경 윤리적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단지 호모 사피엔스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다. 쾌고 감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p> <p>을: 인간만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 관심을 초월한 새로운 의무, 즉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를 자신에게 부과한다.</p> <p>병: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p>
(나)	생략

23)[20-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p> <p>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한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성을 추구하며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존재이다.</p> <p>병: 흄,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며,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p>〈예시〉</p> <p> </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B: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음을 간과한다.
- ② C: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는 잘못임을 간과한다.
- ③ A, F: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④ B, E: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⑤ D, F: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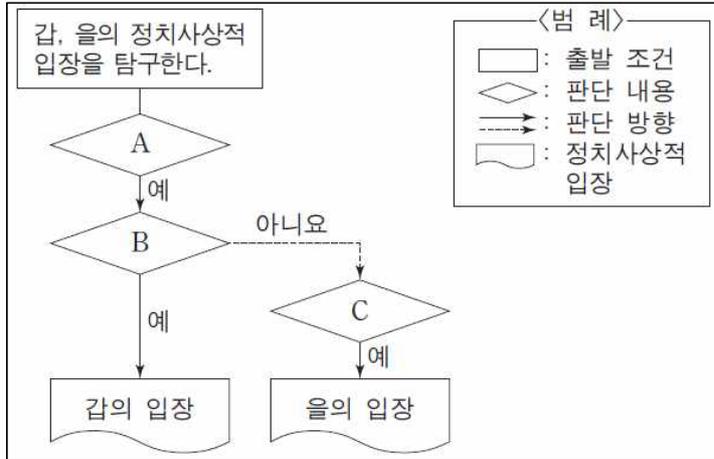
25)[19-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정의는 자신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p> <p>을: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로 도출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p> <p>병: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의 옳음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법 레〉</p> <p>□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div> </div> <pre> graph TD Start[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J1[갑의 입장] A -- 아니요 --> B{B} B -- 예 --> C{C} B -- 아니요 --> D{D} C -- 예 --> J2[을의 입장] D -- 예 --> J3[병의 입장] </pre>

<보기>

- ㄱ. A: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 ㄴ. B: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한가?
 - ㄷ. C: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 ㄹ. D: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Zola Guide (1) 순서도 보는 법 (2) 순서도 편하게 푸는 법
 (3) 연습[16-9-15]¹)(아래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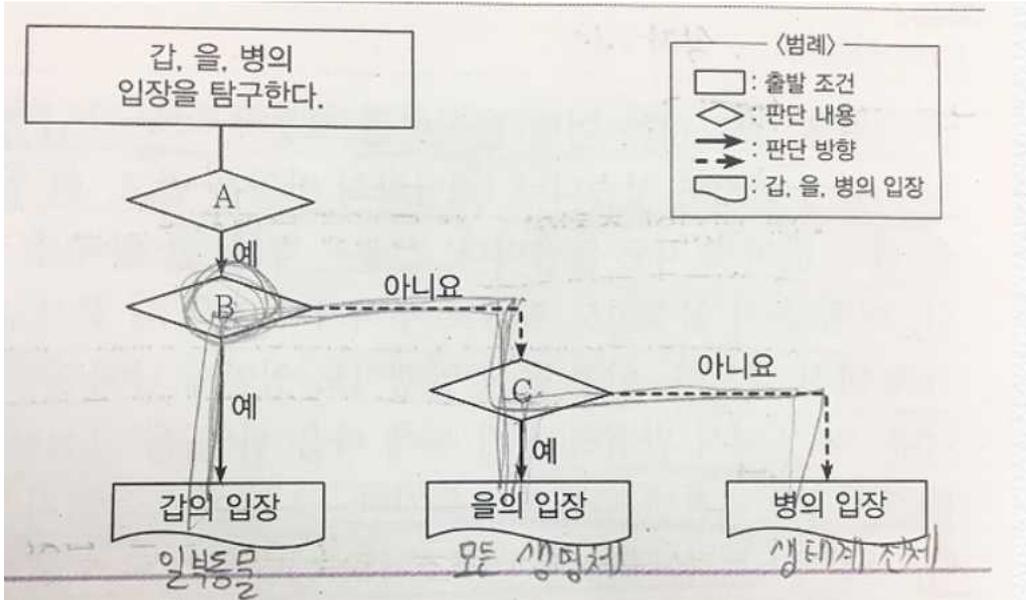
판단 내용	갑	을
A	예	예
B	예	아니요
C	X(응답 안 함)	예

1)

<<바나나의 순서도 풀이 사례>>

☞ Zola는 아래 질문과 답변 모두 이해를 못하겠음.

생운 그림 문제 어떻게 푸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 | 자유게시판(공부)



B가 맞으려면 예->갑의 입장, 아니요->C->예->을의 입장, 아니요->C->아니요->병의 입장 이 3가지 모두를 거쳐가야 하나요?
아니면 예->갑의 입장, 아니요->C->예->을의 입장 이 2가지만 고려하면 되는 건가요?

 **해스더람씨앗먹기** 2018.08.24, 12:48 → 답글 신고
 음 예를 들면 B는 갑에게는 예, 을에게는 아니오가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남군부사관 (작성중)** 2018.08.24, 13:07 → 답글 신고
 병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경희대 박사** 2018.08.24, 13:31 → 답글 신고
 남군부사관 안가도되어

 **경희대 박사** 2018.08.24, 13:32 → 답글 신고
 a는 갑 b는 갑을 c는 을병 d는 병이여

 **남군부사관 (작성중)** 2018.08.24, 14:54 → 답글 신고
 D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네요

 **Zola** 2018.08.25, 00:17 → 답글 수정 | 삭제
 ??????예에 <범례>가 나오는데도.....누구.....
 A-갑,을,병 모두 예
 B-갑은 예, 을과 병은 아니오
 C-을은 예, 병은 아니오.
 열공+즐공=대박!!!!

 **남군부사관 (작성중)** 2018.08.27, 15:43 → 답글 신고
 B쪽 때도 병을 따져야 한다는 말씀ㅇ신가요...?
 위에 댓글 대신 분들과 의견이 달라서 헛갈리네요

 **Zola** 2018.08.27, 23:19 → 답글 수정 | 삭제
 남군부사관 당연하죠..갑, 을, 병이 출발해서 a를 거쳐서 b로 왔는데...b에서 병을 빼는 것이 말이 안 되죠...혼자서
 독학하다면 모를까...누구한테서 배운다면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참고로 저는 감사입니다)...정
 의심되면..기술 문제나 ebs 문제 해설부분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열공+즐공=대박!!!

2. 윤리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름
(명백히 비도덕적인 것은 배제함)

26)[19-수능]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 행위이다.
 - ㄹ.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2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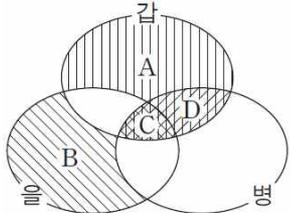
갑: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을: 물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규정되던 기존의 폭력 개념은 불안전하다. 우리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뛰어 넘는 그 이상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보기>

- ㄱ. 갑: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ㄴ. 갑: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ㄷ. 을: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 ㄹ. 갑, 을: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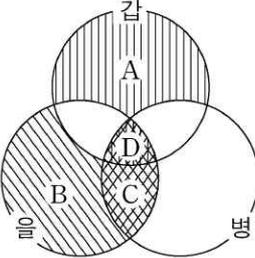
28)[16-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p> <p>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ㄴ. B: 인간은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ㄷ. C: 동물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 ㄹ. D: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선 새로운 도덕 원리가 요청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9)[20-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대지 윤리는 생태 윤리를 반영한다. 생태 윤리는 각 개인이 대지의 건강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p> <p>병: 생명체가 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 ㄴ. B: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ㄷ. C: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ㄹ. D: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30)[18-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 ☞ Zola Guide 강의 중에 사용된 특정 샘플에 대한 얘기는 '상상' 혹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예입니다. 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본 내용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31)[18-수능]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는가?**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32)[22-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 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p> <p>병: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법 레></p> <p>□ : 출발 조건</p> <p>◇ : 판단 내용</p> <p>→ : 판단 방향</p> <p>☞ : 사상가의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 ㄴ. B: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 ㄷ. C: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 ㄹ. D: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3)[21-수능]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갑: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p> <p>을: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p>

<보기>

-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바나나 제거 2. 제시문-선지 구성 원리

1. 수능 문제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예
발문(문두)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자료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선지/ 보기(선지 구성)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2. 제시문-선지 구성의 기본 원리

1. 재활용(중복)
2. 변형 (1) 유사(긍정) or 대립(부정)
(2) 단어 ⇄ 어구
3. 관계 - 인과 관계, 선후 관계, 부분·포함 관계, 결합, 생략 등
4. 부사어나 조사, 수식어 활용 - 선지 바나나와 연결
5. off topic
6. 1~5 혼합. 1~2는 모든 독해의 기본이고 핵심임. 생운은 4도 주의해야 함.

☞ Zola Guide

문제가 풀리면(님들의 개념이든 독해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다만,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혹은 뭔가 문제나 선지가 헛갈린다 싶을 때 Zola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뭔가 막힐 때를 대비해서 Zola의 방식을 써 먹는 연습을 해 보자!!

- (1) 제시문을 문장 단위로 끊음
- (2) 제시문 순서와 선지 순서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음. 혹은 역순일 경우도 있음. 무작위는 거의 없음

(3) 기본 원리 중에서 1~2가 핵심임!

☞ Zola Guide 여기의 문제들을 맞추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 아니다. 밑줄 친 선지나 <보기>를 어떻게 독해로 판단할지를 연습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원리 1~2 집중 확인>>

34)[19-9]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그림 생략)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 ①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가?
- ② 사회 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는가?
- ③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 ④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대해 무관심한가?
- 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가?

35)[16-수능]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36)[22-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 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 ㄷ. 발화(發話)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 ㄹ.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RE[19-9]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그림 생략)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 ①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가?**
- ② 사회 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는가?
- ③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 ④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대해 무관심한가?
- 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가?

38)[17-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39)[19-수능]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을: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기꺼이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

- ① 갑: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 ② 갑: 사형은 살인범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려는 응분의 보복 행위이다.
- ③ 을: 종신 노역형은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 ④ 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이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⑤ 갑, 을: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40)[20-수능]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례>
고등학생 A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가 TV에서 ‘난민 돕기 운동’ 광고를 보고 모은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정언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 ②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하세요.
- ③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세요.
- ④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배려심을 발휘하여 행동하세요.
- ⑤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41)[19-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 ③ 국가 간 이해 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42)[14-6] Zola Guide 같은 무시하고 ‘을’만 참고하여 부정의 답을 할 질문들을 모두 고르시오.

(가)	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나)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두 사람뿐이고, 가능한 분배 방식 A, B,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 y 라고 가정하자.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보충] 생운은 국어 살짝+개념 살짝

43)[19-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4)[17-6] Zola Guide ‘을’만 보고 판단할 것. 개념이 있으면 득해가 편하기는 함.

갑: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을: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원리 3~5 집중 확인>>

45)[16-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부패를 조장하는 관행을 법적 제재로 척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주로 신뢰, 규범, 관용 등 도덕적 자원들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공공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결과 반칙과 부패는 감소하고, 호혜성과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 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청렴성과 연대의식을 함께 강화시킨다.
- ②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결 조건이다.
- ③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 ④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 ⑤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46)[RE] [16-수능]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47)[20-6]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그림 생략)

갑: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은 허용됩니다.

을: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 ㄱ. 갑: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ㄴ. 을: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 ㄷ. 을: 태아는 합리적·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8)[RE] [22-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 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 ㄷ. 발화(發話)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 ㄹ.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9)[RE] [18-수능]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는가?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50)[2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쏘아 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51)[RE] [19-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2)[20-수능]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과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그들 각자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생명체라면 존중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p> <p>병: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p>
(나)	

- ① A: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을 간과한다.
- ③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④ 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⑤ C, E: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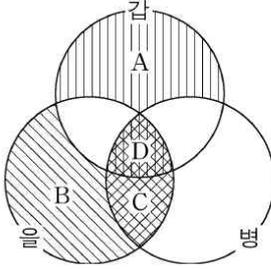
53)[18-6]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피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54)[19-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Zola Guide ‘갑’만 보고 보기 ㄱ을 판단할 것.

(가)	<p>갑: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p> <p>을: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미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p> <p>병: 도덕적 기준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을,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 공통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 ㄴ. B: 대지 공동체 자체가 지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 ㄷ. C: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ㄹ. D: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Zola Guide 바나나 풀이의 예

- (1, 엄마허)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 그러므로 인간만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뉘)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part 3

시험장에서 갑자기  가 올라올 때!!!

(부제: 시험장에서 ‘현타’ 올 때!)

Zola Bonus 선지 검토 원리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특정 단어가 헛갈릴 때2. 문장 자체가 헛갈릴 때3. 1·2로 해결 안 되는 경우 1: 제시문 간의 관계4. 1·2로 해결 안 되는 경우 2: 선지 간의 관계 |
|--|

1. 특정 단어가 헛갈릴 때

55)[17-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큽니다.
 을: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 Zola Guide 원 문제는 말풍선이 있는 대화형 문제임. 독해의 편의를 위해 변형하였음.
 ☞ Zola Guide 조선훈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어느 종로 학원생(100% 인간임!)의 사례가 있음.

56)[22-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법은 일반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을: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병: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법 레>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예 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div> </div>

-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2. 문장 자체 혹은 서술어가 헛갈릴 때

57)[19-수능]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제시문 간 관계 이용하기

58)[18-수능]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자원의 수준보다는 정치 문화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를 위해서 풍요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정의의 제2원칙에 따라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 ⑤ 갑, 을: 공리의 원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 Zola Guide 사상가가 둘 이상 위이면 비교·비판형 독해를 시도 해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seol교대19 2018.09.30, 16:31 답글

신고

선생님선생님 여러인강강사 해설강의 찾아보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려요(논란이 되서그런지 몇분 올리시지도 않았더라구요) 선지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대상으로 하면 안된다'잖아요, 근데 제가 본 인강에서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롤스에따르면 비민주적인사회에는 가난한사회도 있지만 풍요로운 사회도 있다고요..(평가원이 내놓은 답지의 설명과는 다른측면?에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만,때문에 비민주적이고 풍요로운 사회가 제외되서 3번이 맞다는 건데 이렇게 알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나요?

고3내내 항상 생운은 50(수능에서 18번틀림.....)이었는데 재수하면서 정리는 해야할거같은데 혼란스러워서,여쭙니당ㅜㅜㅜㅜㅜ

Zola (장성자) 2018.10.01, 11:56 답글

수정 | 삭제

저는 저 선지가 갑/을의 논쟁형으로 풀면 쉽게 풀린다고 봅니다. 다만 선지만 꼭 떼어내면 힘들죠...ㅜㅜ....

상어가 자원 부족 국가를 원조 대상으로 보자고 하니까,...

롤스가 자원 부족 국가'만' 보지 말고 다른 국가도 살펴봐야 한다....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저는 제시문간의 관계를 논쟁형으로 보고 풀었구요...평가원 출제의도도 비판형임을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결국 갑/을 간의 비판형으로 출제했으면 좋았을텐데...갑,을의 입장으로 문제를 내니까 문제 푸는 입장에서 논란이 생긴 것이죠, 독해로 풀어 보세요^^

열공+즐공=대박!!

seol교대19 2018.10.02, 07:24 답글

신고

아 비판형으로 보니까 바로 풀리네요..헐 ..감사해요!!

Follow Zola!

쌤을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가보면...."진짜 이상한 선생님이다. 내 생운은 망했다. 올해도 이지영 프리패스 끊어야 하나?"였어요. (중략) 작년에 4등급 받았던 생운을 올해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우와...이건 뭐지...?천재인가 저쌤은...? 그냥 단순 지식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간 설명을 이렇게 귀에 쏙쏙 밝히게 알려준다고?"로 제 생각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 3차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쉬운 질문을 하면 이것도 몰라?!너 바보니?'라고 하실줄 알았는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렇게 친절히 답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었어요.

아 그리고 사탐도 에듀퍼스트에서 수강했는데(사탐후기를 국어후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Zola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일단 수업자체가 좋고 관리를 잘해주셔요. 생운 만점 받고 싶다하시는 분은 꼭 들으세요~.

주관적 견해로는 김준호쌤 생운 하셨다면 짱입니다요 ㅋㅋ (웃기고 잘 가르쳐요)

P.S. 수만회에 올라와있는 6평, 9평 분석 자료는 물론이고 스펙 수완에서 중요한 부분만 올려주신 자료, 또 한 선지 빼고 모두 정답이어서 풀고 놀란 기출 짜집기 모의고사와 시발 모의고사 자료 모두 너무 좋아요! ↴

6월에 4 나오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다 죄책감 들어서 추석 특강 좀 들었는데 수업 5일 동안 분배정의 다 정리하고 전쟁론까지 다 끝냄 ㅋㅋ 김준호쌤 사랑해요;;; zola쌤 사랑합니다 9월 46 10월 50 오늘 수능 47 나옴
그때 받은 자료들 다 존나 유용했다...

행복합니다 생운 만점입니다ㅠㅠㅠ 모여 인간형 바나나로 진화했습니다...

넴TTTTTT믿고 듣는 졸라 쌤은 Zola쌤 강의입니다TTTTTTTTTTTTTTT
9달 전
퀸바나나 깔깔 친구들 통수 한두명 통수 맞은거 같아요

바나나였던 걸 깨닫게 해 주셔서 공부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생운 접근 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작년 성적보다 기본으로 10점을 올렸습니다. 탈바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략...

오늘(화) 졸라 가이드 1 숙제를 다 했는데 느끼는 점도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전 여지껏 생운을 지식 차원에서만 논하는 전형적인 바나나형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작년 한 해 동안 생운을 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도 생운을 독서로 보지 않아서 이번에 숙제로 내주신 기출 문제를 모두 독서처럼 풀어보았습니다.

정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 이해하고 충분한 상식 선에서 유추가 가능한 필자의 주장까지 포괄하니 강조해 주신 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도 단순 일치 불일치로 풀려서 놀랐습니다.

또 지식 차원의 선지도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선지를 읽자마자 어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선지인지 보이는데 신기했습니다.

아직 배운건 제시문을 똑바로 읽어라와 간단한 논리 구조를 좀 써봐라 정도가 다인 것 같지만 생운에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졸라쌤은 **바나나 제거 특강**만 들었었는데..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생운 틀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문장을 의미 그대로 안 읽거나 상식적이지 않게, 자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틀리는 건데, 그걸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는 특강..

장점 - **바나나 제거 강의 (바나나가 뭔지는 직접 들어보셔요ㅋㅋ)**

강의력 대박(목소리랑 제스처 등등 엄청 집중 잘 돼요)..

매우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이면서도 풍부한 자료..

작년에 런칭하셔서 겨울부터 들어보지 못한 게 아쉬웠던 쌤..

작년수능 탐구 생운사문 5등급 5등급 찍고 재수했는데 올해 쌤이 알려준대로 독해풀이 장착하고 **바나나 제거**하고 쌍운선택해서 시간투자거의 안하고 쌤 수업만 듣고 πππππ ππ올해 생운 50받았어요πππππ 운사도 독해로 많이 풀려서 도움 많이 받고요..

..

올해 처음 생운했는데 선생님한테 몇달 수업 듣고 생운은 고정 1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생운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거 생각나요ㅋㅋ '이건 **바나나 선지네**ㅋㅋ'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수업 해서 내신도 챙길수 있었고 수능도 봐서 1은 나왔어요ㅋㅋㅋㅋㅋㅋ..

수업 처음 시작부터 함께 했는데, **처음에는 당황하고 특이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잘 가르쳐주시고 특히 필기가 깔끔하니 정리되어서 좋았던것 같아요 :) 그리고 제가 중간에 실기대회며 실기시험이며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빠지기도 했는데, 잘 이끌어 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해요!!..

생운 공부에 도움되는 수강 후기

안녕하세요, 2020년에 졸라쌤 생운0, 생운1-개념편, 수능 한 달 전 현강 들은 학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운 5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받고, 1지망이었던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합격 외에도 중대 유교과, 경희대 중문과, 숙대 영문과에 합격했습니다. 졸라쌤 강의의 장점을 말하기 이전에 간단히 저의 생운 공부 역사?를 말하면, 고3 현역 시절엔 이지영쌤 현강과 임정환쌤 인강(개념만 조금) 듣고, 재수 시절엔 종로 학원에서 졸라쌤을 처음 뵈고, 인강으로 이지영쌤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수한 올해에는 지난날 어리석음을 깨닫고, 졸라쌤 인강을 메인으로 삼고, 마지막 한달에는 졸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저의 수험 생활을 언급한 이유는 3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선생님들을 거치면서 느낀 졸라쌤의 강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느낀 졸라쌤 강의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래지향적(사전적) 대비가 가능하다!

흔히들 알고 있는 유명한 인강선생님을 비롯해, 재수종합학원에 계시는 어떠한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 '열심히' 공부한다면 사후적 차원의 대비는 되고, 기출 문제 만점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해 수능에선 기출되었던 문제 외에도 항상 새로운 '킬러'문제가 등장합니다. 생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탐에서 1문제 이상을 틀린다면 1등급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대비만 되는 강의는 1년 혹은 n년의 수험생활의 발목을 붙잡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인강쌤, 현강쌤과 비교했을 때 졸라 선생님의 강의는 그해 수능, 평가원, 교육청 킬러 문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졸라 선생님 강의에서는 이전에 나온 기출 문제를 통한 개념 확립 외에도 아직 기출되지 않았지만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 역시 포함해 수업하시기 때문에 사전적 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 올해 개념 강의에서 다룬 환경윤리 '~에 대한, ~와 관련된'이 수능에 나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

졸라 선생님 강의와 질답을 하면서 느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체계'가 잡힌 강의와 해설(답변)이었습니다. 타 선생님들을 통해 공부했을 때, 특히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명확한 해답(체계가 잡힌? 납득이 가는)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우자'해서 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을 조금만 바꿔도 응용해 적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졸라 선생님의 경우, 질답 하는 과정에서 의문 없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명확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간절했던 3반수 시절에 선생님 강의를 들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게 제가 뽑는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의로 체계적으로 가지를 쳐주시면서 해주시고, 무엇보다 질답!! 다들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ㅠㅠ 다른 쌤들한테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다가 쌤한테 딱 답을 듣고 오는 그 쾌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ㅠㅠ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장점과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답 외에도 생운0, 개념 강의에서 얘기해주는 바나나 선지, 내용들이 진짜 진짜 효율적인 생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로 진짜ㅠㅠㅠㅠ

3. 빠른 질답, 명확하고 정확한 해설!

윗 장점과 조금 겹치는 내용이지만, 제가 타사 인강쌤들이나 현강(재종) 쌤에게 질문해봤을 때 종종 명확한 해설보다는 그 선택지의 표현만 바꿔서 다시 말해주거나, 잘못된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 질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제가 문제인 줄 알고, 그냥 통째로 외우거나 넘어갔고 이런 문제들이 쌓여 불안과 추후 시험에서 점수의 감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졸라 쌤과 질답을 한 후 제가 깨달은 건, 질답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건 이해를 못한 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잘못된, 부족한 개념 혹은 설명하는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유명 강사들의 경우, 질답 게시판은 대학생 조교들이 답변을 달기 때문에 강사만큼의 실력을 결코 갖추지 못합니다. 또한 현강에서 질문을 한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을 얻기 힘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까요...? 부족한 개념?을 지니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졸라 선생님을 통해서 명확하고 납득가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4. 풍부한 자료!

개념 강의에서 주어지는 문제 교재, 자료 교재, 현장 자료들..., 정말 양부터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자료 교재의 경우는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시중에 나와있는 교과서, 기출, 역대 ebs 중요 자료들을 모두 모아두어서 공부하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암기가 안 되는 내용도 자료 교재를 쭉 읽다보면 이해가 되고 저절로 암기가 되곤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제가 이렇게 수강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꼭 올해 입시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입니다ㅠㅠ 재수 시절 처음 선생님은 뵈었지만, 그 당시 선생님 수업보다는 인강을 통한 학습이 우선되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3반수를 결심하고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선생님의 강의력을 깨닫고 오직 선생님 강의만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을 알게 되셨는지 몰라도 다른 인강 선생님이나 현장 선생님 강의를 병행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ㅠㅠ 물론 여유가 된다면 몰라도 오랜 수능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그 시간에 선생님 개념을 좀 더 암기하거나 기출을 한 문제 더 풀거나,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남는 겁니다...!! 정말로요 ㅠㅠ 그리고 생운 공부 외에 그냥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 입시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잘 안되면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재수가 아니라 삼수로 이어집니다. 올해가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간절히 공부하셔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질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현역, 재수 시절에 제가 범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수업 중인데 흐름 끊지 말고 나중에 질문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주저하고, 많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넘어가지 말고 질문하세요! 선생님을 귀찮게 해야 자신의 점수가 오릅니다. '선생님이 바빠보이시는데,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질문하면 다 대답해주신답니다. 진짜 귀찮아하실지 몰라도 결국 본인한테 자기 점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꼭 올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었던 제 삼반수 시절에 생운을 책임져주신 김준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수강후기도 제대로 쓰고 싶은 마음에 너무 늦게 쓴 거 같아 죄송하네요 ㅠㅠ 선생님 덕분에 생운은 물론이고, 멘탈적인 부분까지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풍부한 자료, 체계적인 강의, 친절하고 세세한 해설까지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zola amazing 답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	-----	----	----	----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시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기출 보는 법 예시

- 16-9-5 → 16학년도 9평 5번 문제
- 18-3교-12 → 18학년도 3월 교육청 12번 문제
- 16-수능-19 → 16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 * '교'는 교육청. 별도 표시가 없으면 평가원임.

- 1) 16-9-5-거짓
- 2) 17-9-10-거짓-오답률 60%
- 3) 09-수능-18-거짓-(오답률)12%(실제 생운 문제였으면 오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음)
- 4) 19-9-5-거짓-(오답률)12%
- 5) 21-수능-11-거짓-오답률 31%(ebs 추정치)
- 6) 18-3교-12-거짓-오답률 36%
- 7) 20-10교-7-참-판단이 틀린 친구들이 약 30%
- 8) 16-수능-19-거짓-오답률 33%
- 9) 16-4교-6-거짓-오답률 31%
- 10) 17-6-7-거짓-오답률 33%

11) ⑤

1%	5%	2%	1%	90%
----	----	----	----	-----

12) ①

61%	6%	5%	16%	11%
-----	----	----	-----	-----

13) Zola Guide 답 1, 19-6-20번. 선지 ①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이 50%(정답률 50%)

14) ②, ebsi 예상 정답률 62%

15) ⑤

10%	4%	3%	44%	38%
-----	----	----	-----	-----

16) ②

2%	51~65%	3%	23%	7%
----	--------	----	-----	----

17) ⑤

2%	3%	38%	3%	(44~)54%
----	----	-----	----	----------

☞ Zola Guide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수능 문제임. 6평이나 9평 만점 혹은 고득점 받았다고 자만 하면 안 됨.

18) ②

12%	62%	8%	7%	11%
-----	-----	----	----	-----

19) ③

11%	21%	36%	5%	27%
-----	-----	-----	----	-----

20) ②

50%	28%	8%	4%	9%
-----	-----	----	----	----

21) ①

72%	3%	3%	15%	8%
-----	----	----	-----	----

☞ Zola Guide ㄴ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26%

22) ③

9%	7%	21%	13%	50%
----	----	-----	-----	-----

☞ Zola Guide ㄴ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29%

23) ④

3%	6%	23%	55%	13%
----	----	-----	-----	-----

☞ Zola Guide ③을 고른 존재가 23%?! 실화냐?

24) ②

1%	55%	1%	43%	1%
----	-----	----	-----	----

☞ Zola Guide ㄹ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45%

25) ③

7%	9%	29%	11%	44%
----	----	-----	-----	-----

☞ Zola Guide ㄱ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62%

26) ③

6%	3%	57%	10%	24%
----	----	-----	-----	-----

☞ Zola Guide ㄷ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37%

27) ④

3%	13%	4%	67%	14%
----	-----	----	-----	-----

☞ Zola Guide ㄱ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18%

28) ③

9%	7%	21%	13%	50%
----	----	-----	-----	-----

☞ Zola Guide ㄷ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22%

29) ③

5%	14%	58%	6%	17%
----	-----	-----	----	-----

☞ Zola Guide ㄹ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19%

30) ②

4%	54%	17%	7%	15%
----	-----	-----	----	-----

☞ Zola Guide ②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46%

31) ④

5%	1%	25%	68%	1%
----	----	-----	-----	----

☞ Zola Guide 선지 ③번에 25%가 맞렸음! 정신차려라!!

32) ③

4%	9%	58%	10%	19%
----	----	-----	-----	-----

☞ Zola Guide ㄱ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33%(참고: ebsi의 ㄱ 오답률은 44%)

33) ②

1%	55%	1%	43%	1%
----	-----	----	-----	----

☞ Zola Guide ㄹ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45%

34) ①

92%	2%	2%	2%	2%
-----	----	----	----	----

35) ①

80%	3%	5%	1%	10%
-----	----	----	----	-----

36) ①

79%	15%	2%	3%	1%
-----	-----	----	----	----

☞ Zola Guide ㄷ에 대한 판단이 실패한 분들 18%(참고: ebsi의 ㄱ 오답률은 39%)

37) ①

92%	2%	2%	2%	2%
-----	----	----	----	----

38) ①

61%	6%	5%	16%	11%
-----	----	----	-----	-----

39) ⑤

7%	6%	2%	2%	83%
----	----	----	----	-----

40) ②

2%	75%	2%	1%	21%
----	-----	----	----	-----

☞ Zola Guide 선지 ⑤를 선택한 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였음. (1) 개념적 실수, (2) 독해적 실수

41) ②

12%	62%	8%	7%	11%
-----	-----	----	----	-----

42) Zola Guide 답 4와 5(아래 표 참고), 14-6-19번

을의 계산법	선지(질문)	을의 대답
A=10 B=13 C=13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응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응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응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아니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아니

43) ①

53%	14%	3%	23%	7%
-----	-----	----	-----	----

☞ Zola Guide ㄱ, ㄴ은 독해로 가능함. 여기에 실패한 분들이 24%

44) ⑤

10%	4%	3%	44%	38%
-----	----	----	-----	-----

45) ②

3%	85%	4%	4%	4%
----	-----	----	----	----

☞ Zola Guide 솔직히 정답률 높아서 깜놀했음. 바나나들이 각성했나 싶었음.

46) ①

80%	3%	5%	1%	10%
-----	----	----	----	-----

47) ③

2%	2%	46%	4%	45%
----	----	-----	----	-----

☞ Zola Guide ㄷ 오답률 51%...독해 안 하나???

48) ①

49) ④

5%	1%	25%	68%	1%
----	----	-----	-----	----

50) ④

10%	2%	1%	85%	2%
-----	----	----	-----	----

51) ①

53%	14%	3%	23%	7%
-----	-----	----	-----	----

☞ Zola Guide ㄱ, ㄴ은 독해로 가능함. 여기에 실패한 분들이 24%

52) ④

1%	11%	41%	45%	2%
----	-----	-----	-----	----

53) ①

83%	4%	6%	2%	3%
-----	----	----	----	----

☞ Zola Guide 선지 ③이 "off topic"의 대표적인 문제임

54) ③

9%	10%	29%	17%	35%
----	-----	-----	-----	-----

☞ Zola Guide ㄱ 독해에 실패한 분들이 36%

55) ⑤

10%	4%	3%	44%	38%
-----	----	----	-----	-----

56) ④

3%	8%	57%	22%	10%
----	----	-----	-----	-----

57) ⑤

2%	3%	38%	3%	(44~)54%
----	----	-----	----	----------

☞ Zola Guide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수능 문제임. 6평이나 9평 만점 혹은 고득점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방심하는 순간 흑 간다!!

58) ③

3%	12%	81%	3%	1%
----	-----	-----	----	----

59) ②